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인곤 앙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강선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호

죽음에 관한 고찰 2

받아들이는 길과 운명에 맡기는 길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원한 영혼의 해방

불교와 힌두교는 공통점이 많다. 사실상 불교는 종종 정통을 벗어난 힌두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가장 큰 공통점은 힌두교와 불교가 동일하게 죽음을 이해하고 또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일체움을 제시하려는 데 그 중심 사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고타마 부다(Gautama Buddha, B.C. 563~483)는 힌두교 고전인 베다(Veda)의 권위를 부인하고 또 죽음이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파니샤드(Upanishads)를 반대하면서 오히려 고통과 죽음은 실제적인 것이며 비존재라는 것으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출 19:21, 25~27). 부다는 인간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부터 떨어져 가는 것을 꾀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는 고통과 죽음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로 옳고 애쓰는 데 있다. 불교에서 죽음은 인간 존재에 피할 수 없는 사실로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어야 할 뿐이다. 죽음은 아를 회피하려고 할 때에만 고민을 초래하게 된다. 불교인들에게 있는 최고의 영적 성취는 욕망을 통하여 무아(Non-Self)의 경지, 곧 자아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마 16:15~16, 21).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항변하였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다(마 16:24). 그러나 부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가 없는 상태에 몇 초라도 이르라고 가르쳤다. 불교의 수도사들 중에서 행하여지던 영적 훈련 방법 중의 한 가지는 인간 사회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부패되어가는 것을 오랜 시간을 두고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모든 무상한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며 이로 인하여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훈련이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무아의 경지를 그리고 있다. 끊임없는 세상의 삶과 해결 못하는 죽음을 무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이 노력을 사람들은 존경하고 있다고 전 2:6~7).

공자(B.C. 551~479)는, 힌두교의 베다나 우파니샤드를 쓴 철인들이나 또 부다보다도 훨씬 적게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공자는 현실에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에 그의 초점을 둔 사회, 윤리, 정치적인 가르침의 옹호자였다. 공자는 죽음에 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현실이 중요하였다. 사회가 평화를 이루고 인간 사이에서 존경과 경의를 가지고 지내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정치가 중요한 매개체였다. 그는 내세에 대하여는 있는 그대로 운명에 맡기고 살라는 주장이었다. 생명이 있는 곳

에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 시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다(전 3:1~4). 이러한 유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자의 도교, 불교 또는 죽음과 내세에 관한 여러 가지 모양의 토속적인 것들과 섞여 토속화되었다(전 3:19~22, 2:16~17). 토속화된 유교 안에서의 죽음에 관한 태도는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자연 법칙에 내어맡기는 태도로서 현대의 인본주의 사상과 같다.

서양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음에 관한 사상은 기독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플라톤(B.C. 427~347)의 가르침에 근원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당시 사이비 종교(Orphic Cult)에서 애용되던 시의 '욕신은 무덤이다'라는 한 구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욕신의 근본을 닦게 본 것이다. 이 개념을 배경으로 삼아서 플라톤은 인간 영혼의 본질적인 불멸성과 죽음에 관한 그의 의견을 발전시켰다. 그의 초기 서적인 변론론에서는 죽음에 관하여 비교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후기의 저작인 파이드론(Phaedo)에서 죽음에 관한 그의 결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플라톤이 영혼은 불멸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식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생각은 물체에서 올 수 없고 또 물체로 구성될 수 없다. 둘째로 생각은 변화하지 않으며 영원하고 생각이 없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지나쳐 버릴 수도 없다. 셋째로 생각은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물체 속에 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혼도 역시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회합 철학은 인간 이원론(Anthropological dualism)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욕신은 물질적인 것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욕신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비물질적이며 불멸하는 것으로 이 영혼을 만드는 그것이 곧 인간의 진정한 본체다. 이 영혼과 욕신의 관계는 겹질 속에 있는 밀알, 겹질기 안에 있는 굴과 같은 것으로 비교될 수가 없다. 사이비 종교(Orphic Cult)에서 욕신이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인간의 몸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영혼이 욕신 안에 갇혀 있는 한 참 지식은 완전하게 얻어질 수 없으나 죽음을 통하여 영혼은 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따라서 회합 사람들은 욕신의 죽음을 가깝게 다루지 않는 동시에 참 인간이 물질적인 간힘에서 해방되는데 생각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가버리게 된다. 환적이 극명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 죽음이 오히려 환영받고 자살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러한 사상에서 오고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고 취해야 하는 것에 대답을 얻으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제44대 장로 제24대 안수집사 제52대 권사 피택 결정



나 비록 약하나
주 하신 말씀 의지해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 힘쓰리

지난 주일(3월 27일) 4부예배 후에 있었던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44대 장로 후보자 10명 및 제24대 안수집사 후보자 42명을 피택하였습니다. 또한 당회에 위임하였던 제52대 권사 후보자 85명도 피택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의회로 다시 모여 개표 결과를 알리려 하지만 (주간충현) 공고를 통해서 대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시에 위임목사님이 설교하신 "제가 아직 낮아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는 말씀대로 주님은 이번에도 피택된 이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피택된 신분들은 오늘부터 6개월간의 피택자 교육(4.3.~9.24.)을 받게 됩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가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재건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딤후 2:20).

*피택자 명단은 본지 5면

THE HOPE OF A BELIEVER

⁽¹⁾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 For this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because it did not know Him. ⁽²⁾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³⁾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1 John 3:1~3)

This letter describes the richest life that a believer obtains here and now through their hope in Christ. Today's verses highlight who we are, what we shall be, and what we should be. Knowing these things is the hope of a believer.

God's love is amazing and wonderful,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1 Jn 3:1). John, the beloved disciple of Jesus, wrote these words. He experienced God's love firsthand by living with Christ for three and a half years during His earthly ministry. He witnessed Jesus' life,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His understanding of God's love was profound, so much so that he was able to summarize the gospel message in one sentenc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n. 3:16). At Jesus' last meal, John saw Jesus wash His disciples' feet and heard Him say,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you are right, for so I am. If I then, the Lord and the Teacher,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If you know these things, you are blessed if you do them"(Jn. 13:13~14,17). At the cross, John saw Jesus die and heard Him tell His mother to behold John as her own son and John to behold His mother as his own (Jn. 19:26~27). He heard Jesus' last words of, "I am thirsty," and "It is finished" (Jn. 19:28~30)! God's love toward us is expressed so deeply through John's writing. Do you grasp the greatness of God's love in your becoming His child?

God's children must appreciate and give thanks to God for His great love. John explains, "For this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because it did not know Him.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1 Jn 3:1~2). John was a fisherman who became God's son. This earth cannot understand this reality, and even we do not know the exact details of what we will be in the future. We do know that in becoming a child of God the world we live in now hates us, "If the world hates you, you know that it has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If you we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chose you out of the world, because of this

the world hates you"(Jn. 15:18~19). Believers need to be ready for persecution. Their earthly future is not about money, fame, and happiness, but about battles. Do you realize that when you become a child of God you will endure the pain of attacks? Are you ready for that? The Holy Spirit is within you to help. John says, "When the Helper com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about Me, and you will testify also, because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Jn. 15:26~27). If you accept Jesus Christ and become God's child then you should appreciate His love no matter what happens.

God's children will be like Jesus when He appears,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1 Jn 3:2~3). John had a difficult life, just as we have hard times in failure and sin. We must deny ourselves and confess our sins to Jesus so that we can be restored,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we are deceiving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1 Jn. 1:8~9). Living in the battlefield requires us to confess our sins everyday. Everything will change when the trumpet sounds and Jesus comes,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will be changed"(1 Cor. 15:51~52). We will become just like Jesus is and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This will be an amazing transformation.

My dear friends, John understood God's tremendous love and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whom believers will be like. He also understood that true believers of Christ will have trials and tribulations. In fact, they will be hated and persecuted because of Christ. However we, like John, have the greatest of causes to be joyful and hopeful because in the end we will be like our Lord. Isn't such an understanding the purest of hope? 

신자의 소망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1~3)



김성환 목사

이 편지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당장 얻게 될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자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요일 3:1)라고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이해는 아주 심오했기에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예수님과 그의 마지막 식사 때,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았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3~14,17)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아들로 여기고, 자신에게도 그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요 19:26~27). 그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내가 목마르다”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들었습니다(요 19:28~30). 요한의 서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의 진가를 알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요일 3:1~2)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어부였습니다. 이 세상은 이 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

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신자들은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삶은 돈, 명예 그리고 행복과는 상관없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핍박들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것에 대해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요 15:26~27).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요한은 우리가 실패와 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것처럼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죄를 회개해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8~9). 영적 전쟁터에서의 삶은 낱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은 변화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전 15:51~52).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신자들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우리도,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가장 순결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나의 관심도는 얼마나 되는가? 아니,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에 보였던 미지근한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가족과 함께 했다면 가족들의 걱정과 그들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설교는 뒷전이고 이후에 있을 내 삶의 일상과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으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사 7:14)에게 관심이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사람이 확정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범죄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사 53:12)는 진리보다, 당장 지금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줄 지식을 더 중시하고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라는 재림의 소망(살전 4:13-16)보다, 불완전한 세계 경제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더 크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무관심하다. 가장 심각하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보다 좀더 좋은 내 삶에 모든 노력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한계에 다다른 지구와 인간, 환경 앞에서 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성경만이 진리라는 사실이 더욱더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유한한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또는 불완전 때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자. 자기를 부인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마 16:24). 재림의 날이 아주 가까이 있다.

●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재림의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마 25:12~13). 중요한 것은 그 날에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 축복과 저주(마 25:32, 41)로 나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재림의 징조(마 24:6~8)를 간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매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살전 5:9).

● 생각이 없을 때에 끌어 올림을 당한다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끌어 올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그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라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뜻의 처를 기억하라"(눅 17:31~32).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이며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담대한 삶이다(요일 2:28).

●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생각지 않을 때에 끌어 올림을 당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낱알이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롬 14:12).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있는 믿음의 공적만이 진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태도는?' 이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여지고 물결이 뜨르운 불에 녹아지리니와"(벧후 3:11~12). 그날을 소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항복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매순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다. 아멘.

메시아의 묵상 ②

인자가 넘겨진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인자'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구약성경에도 인자라는 말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단순한 사람(사 51:12; 렘 49:18, 51:43)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부르 때(단 8:17)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2~8, 11~17, 20~40, 43~44, 47장)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우들을 '인자'는 단순한 인간, 또는 인생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인자 같은 이'(단 7:13),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보았던 '인자'(행 7:56)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인자'라는 명칭은 예수님이 자신을 칭할 때 습관처럼 즐겨 쓰신 명칭이다. 이 명칭은 구약성경 시편 8:4, 다니엘 7:13~14에서 유래되었는데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적용시키셨다(마 16:27, 24:30, 26:64). 이 명칭은 마태복음에 30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25번, 요한복음에 12번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 자신이 자주 쓰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정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마 8:31, cf. 마 9:31, 10:33).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인자가 당할 고난에 대한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의 차이다. 마가와 마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시니라"

(마 14:41; 마 26:45)고 기술한 반면 사도 요한은 동일한 상황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요 12:23)라고 기술함으로써 고난 뒤에 이어질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까지 염두두었다. 마태와 마가 본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재림의 승리로 있다는 점을 본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다(요 1:51, cf. 장 28:12).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으신(살하 14:16). 죄인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마 2:17).

이와 같이 '인자'에는 예수님의 선재성과 신적 존엄을 계시하고 속죄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인성, 그의 지상 사역,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며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치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은 편하였더라"(막 14:21, cf. 마 26:24)의 타박에 우리가 속해 있지는 않은가? 인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은 산들과 바위에 "우리 위에 떨어지 보라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리라"는 애곡을 하게 될 것이다(계 17:6, 16:1).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성취하신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단지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악한 죄인임을 절대로 잊지 말자(마 27:3~4; 마 15:15; 요 19:11).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를 맺는 것뿐이다. "검손히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자의 매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택자 명단 / 땅끝까지

제44대 장로 피택자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김영환	18	10	남용승	9	80-755	박석산	7	91-52
변창대	10	94-954	안연식	18	91-944	이희우	14	93-1022
임연수	21	546	최현구	13	2002-0286	허만선	5	82-648
현준봉	22	93-98						

제24대 안수집사 피택자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강주원	10	92-652	곽홍준	8	89-215	권태선	19	86-491
김낙교	16	2001-0163	김대식	7	91-176	김대학	14	2005-0049
김동희	6	82-531	김승환	2	99-337	김 욱	1	99-592
김유식	7	91-426	김경호	8	92-564	김창용	12	98-1155
김관봉	20	2000-0324	류동원	13	92-614	문한성	5	92-422
박광용	14	88-900	박근용	24	2006-0043	박삼성	15	95-253
박진수	16	96-1100	박관수	5	2009-0178	배현수	23	3661
성 증	15	92-1256	송한성	12	82-711	송현덕	19	89-399
심재현	20	92-1354	위길호	7	2000-0364	이동준	17	96-554
이오백	6	97-619	이인관	4	92-1150	이일영	22	84-1236
이정진	8	2003-0212	임태현	12	96-534	전승기	23	96-291
전종수	21	88-699	전찬국	17	91-384	정남규	1	91-381
조운재	22	2000-0159	최병일	5	2002-0291	최승민	4	94-1297
최한태	3	87-331	황경석	4	2000-0389	황석환	15	95-100

*피택자·장로 피택자는 부부 동반은

오늘 찬양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피택자교육 개강예배를 드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2대 원사 피택자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이 름	교구	교적번호
강순용	4	89-1329	강영태	10	80-734	곽숙단	15	85-94
권미숙	6	98-331	권진숙	6	95-8	김경숙	18	88-622
김경순	3	89-979	김기복	6	98-1045	김남순	19	2002-0288
김병숙	7	94-1192	김명순	13	92-87	김명화	17	85-411
김석영	7	81-61	김성자	22	92-1265	김순애	15	91-532
김승희	22	85-274	김신애	15	93-1263	김연숙	11	86-4
김인숙	14	91-131	김재순	8	82-273	김정남	8	94-360
김정순	11	82-201	김정자	2	90-380	김진화	8	92-1321
김청순	23	85-416	김태금	17	80-516	김희숙	12	4360
남준자	14	95-402	명신덕	18	88-320	박경혜	13	92-614
박순례	12	82-711	박영순	10	82-242	박영희	23	92-62
박정숙	9	86-279	박정혜	9	2005-0094	박종숙	19	87-446
박찬숙	4	87-720	박현숙	3	79-526	백문원	13	88-418
손창순	13	2002-0018	송경희	10	86-24	신동욱	1	89-1413
신성애	21	2003-0069	신순자	6	98-973	신점숙	16	2005-0019
안선희	9	91-111	안재자	6	97-89	안정숙	17	2813
양영숙	16	93-213	오광순	11	80-187	오선희	3	89-71
윤부기	5	87-431	이경순	3	99-935	이광주	21	89-841
이덕심	10	84-56	이명숙	7	79-601	이미자	4	2005-0250
이분남	19	95-1427	이월산	5	93-329	이은순	2	2004-0437
이정미	3	89-596	이정애	5	85-639	이정현	23	191
이형자	20	84-73	이흥옥	10	1221	이희자	6	80-527
임길영	2	84-232	임은혜	1	2005-0159	임점희	24	91-1118
장숙희	8	88-357	장순안	2	87-503	장순수	7	83-629
장업선	14	89-114	정숙자	12	79-87	정재선	5	94-1086
조미희	21	80-218	조영란	15	87-249	조옥례	24	82-123
주혜연	5	85-58	진화자	20	82-212	최양옥	24	1673
최영옥	9	888	최정일	16	81-1022	한연숙	20	1889
황은미	23	84-1084						

상황이 반전되었다

현지의 상황은 만만하지 않았다. 11시간 이상 걸려 도착한 현지 숙소에는 예약된 방이 없었고 기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렵사리 한인 가이드와 연락이 되어 숙소를 구했지만 한인 가이드와는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열려가 앉았고 성령이 도우시길 기도하였다. 주일예배 후 연락된 현지인 기사를 통해 사역의 길이 열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상황이 반전되었다. 아침마다 나누는 경건회는 매일같이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었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한편의 주옥 같은 설교로 팀 전체에 은혜와 능력이 되었다. 이동하며 맞은 첫 번째 사역지에서의 두려움과 긴장된 첫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한수룩. 은혜와 능력이 걸음으로 바뀌어갔다.

피택자(안수집사, 6교구)

왜 선교를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시역 첫날 '뽕'이라는 18세의 젊은 여성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다. 처음 말을 건넸을 때 그녀는 현지어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본인은 부처를 믿으니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 같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녀의 눈에서는 무언가 모를 혼란스러움이 느껴지는 듯했다. 많이 망설이더니 마침내 열접기도를 낮은 음성으로 따라하고 한국어로 축복하는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진한 감동과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다음 사역 장소로 이동할 때 열접기도를 따라하던 그녀의 눈망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주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그토록 강조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이미 주님께서 현지인들을 품으셨다는 계획을 아주 조금이며 알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고 주님께 진심어린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그 어떤 말로도 이와 같은 감사를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것 같다.

정순균(집사, 청년2부)

영적 싸움터

이번 선교는 예상치도 못하고,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삶에 변화와 활력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선교를 예정하셨으며, 기도 끝에 선교를 가게 하셨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선교인데 거의 24시간을 소요하여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는 관계로 밤을 꼬박 새워 교회에 도착하고 비행을 시작했던 터라 무척 피곤했지만 주님이 예비해 주신 선교지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을 하면서 스리랑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힘든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 팀이 하나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수한 영적싸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스리랑카를 품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착한 그들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열이 쌓여 있음을 보면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다시 한 번 놀라며 주님의 품 안에 우리들을 안아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연신(성도, 2교구)



주희야, 예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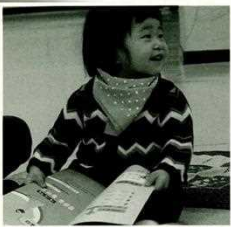
“주희를, 예린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 맞아. 주희야, 예린아 너를 사랑해 하시며 바라보시지? 그럼 우리 스티커를 떼어 붙이며 사랑스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해 볼까?”



영아부의 공과시간은 언제나 시끌시끌합니다. 한 주간 가정에서 말씀을 먹인 영아 아빠들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아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총현의 만나)를 활용해 활동 영역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스티커, 만들기, 미로찾기 등 (총현의 만나)는 긴 시간 집중하기 힘든 어린 친구들이 즐거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활짝 마음, 쏙쏙성경, 풍포생활 등 여러 가지 영역활동을 통해 가정에서도 영아 아빠가 어렵지 않게 아가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재인 (총현의 만나)를 통하여 주일날 전도사님을 통해 받은 말씀이 날마다 가정에서 다시 아기들에게 먹여진답니다. 욕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자라는 영아부 아가들이 든든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영아부 영아 아빠가들, 사랑합니다.

허국현(교사, 영아부)



정말 은혜로운 금요일

역시 금요찬양집회는 찬양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제법 <기도>라는 곡이 익혀지니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기도가 울려오는 듯합니다. 또한 <나 가진 모든 것>은 부를 때보다, 들을 때 훨씬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몸은 지쳐 피곤해도 찬양을 드리고 듣다보면, 정말 거짓말처럼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말 은혜로운 금요일은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특히 말씀이 주는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의 완결판인 것 같습니다. 죽음에 관한 고찰, 그 첫 설교인 죽음을 앞에 선 인간의 삶이라는 제목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이 덜 타락하고, 덜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미화시켜서 죽음이 마치 인간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인 양 자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말이 부분적으로 일리 있어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전혀 그러한 논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맡음하셨을 뿐입니다. 죽음은 그 후에 범죄함으로 생겨났습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의 생명은 언제나 죽음의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죽음은 모든 삶에 뒤따르는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꿈, 욕망, 가능성, 부부들의 사랑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인간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정말 죽음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죽음인 아닌가요?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대로 해보려하면 여지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와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회개 철학은 나름대로 죽음을 미화시켜서 이해해 버렸고, 힌두교는 죽음이 실제로는 없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죽음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며, 그래서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은 죽음을 이해해 보고고 애읍니다. 그래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간의 사고 체계 안에서 해석을 해 내려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으로 답을 얻는 우리들은 그것마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만들고,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믿기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명의 성도)



울보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딸, 은혜예요. 순간순간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잊고 지낸 그동안의 저로 인해서 감사했을 주님 생각에 죄송함으로,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찬양할 때, 저는 매 순간마다 눈물이 넘치는 울보가 되었습니다. 단혀 있는 제 마음 문앞에서 섬 없이 문을 두드리며 “나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리고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셨을 주님, 저를 떠나지 않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 두드리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즐거운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내 모든 것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이가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스금 깨닫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한 요즘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기다려지고, 그 기다림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저에게 있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될 테니까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 28:15). 저를 참 많이도 용케 하고 웃게 한 이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살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은혜(청년1부)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절, 사순절(3.9~4.23)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주력교구별로 실시 중인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주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 언제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욕심과 의를, 40일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역시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자아와의 싸움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겨야 한다. 나에게 있어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는 나의 나약함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고,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기도 할 것이다. 사순절이 더욱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김종원(집사, 청년2부)**

✚ 작년 사순절 기간, 특별새벽기도회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서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기간이었다. 스테반의 죽음이 이방인의 누가의 모습에 충격적으로 비추어졌듯이 나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영원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매일같이 정의를 내리고 단정 지으며 약해지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며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였다. 이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서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길 간구한다. **유정숙(청년부)**

✚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때 학교 가 기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함은 있었지만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한 마디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른 일에 비해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관(고등부)**

✚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새벽을 깨워 나와 교구 가족들을 불러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얻은 삶과 육은 더 강건해지는 시기가 사순절인 것 같다. **권봉(전집사, 22교구)**

✚ 새상 것을 추구하고 죄에는 무감각해진 심령을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당하신 모진 고통을 생각할 때, 비로소 나의 죄 값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예수님의 고통이 나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사순절.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도 기도하길 원한다. **김은정(집사, 12교구)**

✚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함을 보고 그들을 한심하다 비웃은, 그리고 비난한 나. 그렇지만 똑같이 제자들처럼 잠에 빠져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본다. “주님,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눈물 흘리며 간절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정종현(집사, 23교구)**

✚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기간에 내가 낮아지고 나의 고집과 교만, 악선, 편견과 나의 죄악이 폭어지기를, 내가 좋은 만큼 새롭게 거듭날 것을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 드린다. **김영순(집사, 3교구)**

사순절을 알자 (4)

사순절의 금식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 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완화되기 시작하여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를 행했으며,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통례가 되었고, 저녁에도 간단한 식사인 플레이신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기 등과 같은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등의 오락 생활 등은 자제되었다.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었다.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구약 장야 교회 40년, 예수의 공생애를 위한 광야의 40일, 그리고 고난의 기간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에 아무 한 끼, 또는 저녁 식사만 하되 생선과 달걀 그 이상의 음식은 금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새 생명의 탄생을 연상케 하는 달걀이나 우유 등의 음식까지도 규제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고 한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880	김민지	중등부	1	임은혜	1896	정재한	청년1부	13	오광순
1881	김민지	중등부	1	임은혜	1897	김형길	양육반	15	이병근
1882	김선희	양육반	2	이유선	1898	이재기	양육반	18	배종락
1883	채민구	양육반	2	김종용	1899	김종민	청년1부	18	박성미
1884	홍서연	양육반	2	남계순	1900	김현진	양육반	19	황은선
1885	남종수	양육반	8	김종훈	1901	김혜진	양육반	19	배종락
1886	전동욱	양육반	9	안재선	1902	양유정	양육반	19	황은선
1887	김진욱	양육반	10	김유선	1903	임재규	청년1부	19	김정민
1888	한경자	양육반	10	이혜숙	1904	오연민	청년1부	20	이근호
1889	한기현		10	박석선	1905	김인영	청년1부	22	김정민
1890	김윤호	양육반	11	장영환	1906	박주리	양육반	22	박광식
1891	전계서	소망부	11	심순선	1907	김종영	양육반	5	김은경
1892	안재현	양육반	12	전동여	1908	전민혜		22	나영실
1893	최지은	고등부	12	최윤정	1909	정명수	양육반	5	
1894	김지아		13		1910	김효정		14	김필자
1895	임학민	양육반	13	박정란					

교회 소식

모임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교회 소식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주요한 헌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주요한 헌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주요한 헌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주요한 헌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주요한 헌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주요한 헌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4월 중헌 기도의 창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써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원한 중에 바가 피사니라"

1.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3월 9일 ~4월 23일이 되게 하시며 사순절 특별색기기도에 주력하고 십구주를 전한 참회기도 회를 베푸소서.
2. 중헌의 모든 성가 거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3. 교회에 동공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의 생명의(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자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4.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은혜(요 4:24)를 위하여 이리 미(15분) 전 예배실 착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6.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국 일꾼(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7. 1월 1일(1월 1일) 전도부에 교회주변과 이웃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 130여 명을 전신전하게 하소서.
8. 복음의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16:15)에 자기를 부린다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9. 중헌의 재단(요지) - 봉산 - 복지(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립(요지) - 함양(요지) 및 중헌의 사립(요지) - 함양(요지)이 이웃 사랑의 열매(15:2)가 되게 하소서.
10. 피파자들이 모든 환원을 통해서 자기를 부린다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령(15:2)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소: 봉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주요한 헌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주요한 헌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성 기 는 문 들

1. 정기회
일시: 6월(수) 2주 수요일에 후 정소: 당회실
- 발세
1. 김현태 성도(이정호)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이복성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임이복 성도(이복성) 성도의 모인,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 결혼
1.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2.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
3. 김현태 군(김정호) 김사 - 위암은 김사의 아들, 12교구 담임(리구) 3월 21일 별세, 3월 25일 장례